

주요 산유국(OPEC+), 2020년 3월까지 원유 감산 연장 합의

- 사우디아라비아, UAE 등의 OPEC 국가들과 러시아를 비롯한 비 OPEC 국가들은 2019년 6월 말까지로 예정된 감산 정책을 2020년 3월로 연장하는 데 합의하였음.
 - 2019년 7월 1~2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OPEC 정례 회의 및 OPEC+ 회의에서 2020년 3월까지 일일 생산량 기준 OPEC 국가 80만 배럴, 비 OPEC 국가 40만 배럴의 원유 감산 연장이 결정되었음.¹⁾²⁾
 - 2017년 12월 OPEC+ 국가들은 국제유가 부양을 위해 6개월간 일일 12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하였으며, 2018년 6월 이후 이를 6개월씩 2차례 연장하였음.
 -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는 G20 정상 회의(6월 29일)에서 이미 감산 연장에 대해 합의를 이루었음.
 - 사우디아라비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란도 감산에 동의하였으나 사우디아라비아와 비 OPEC 국가인 러시아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감산 논의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.
 - 감산 논의 이전부터 OPEC+가 감산을 연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연장 결정 발표 이후 국제유가의 상승폭(WTI 기준 1.1% 상승)은 제한적이었음.
- 원유 초과 공급 증가, 주요 산유국의 재정 수입 증대 필요, 아람코 IPO 준비 등이 이번 감산 연장의 주요 배경이라고 할 수 있음.
 - 최근 미·중 무역분쟁, 유럽 및 아시아 주요국의 성장 둔화로 원유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음.
 - 이에 반해 미국이 셰일오일 생산을 확대하면서 원유 공급은 증가하고 있어 국제유가 부양을 위해 OPEC+ 국가들은 감산을 지속할 수밖에 없음.
 -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2019년 5월 기준 일일 1,230만 배럴이었으며, 이 중 셰일오일은 746만 배럴로 사상 최대치를 달성하였음.
 - 러시아를 제외한 산유국 대부분이 정부 재정 수입에서 석유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국제유가가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남.
 - 감산 연장을 주도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람코 기업공개(IPO) 시 기업가치를

1) OPEC 정례 회의는 6월 25~26일로 예정되었으나 러시아가 G20 회의 이후로 OPEC+ 회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함께 미루어졌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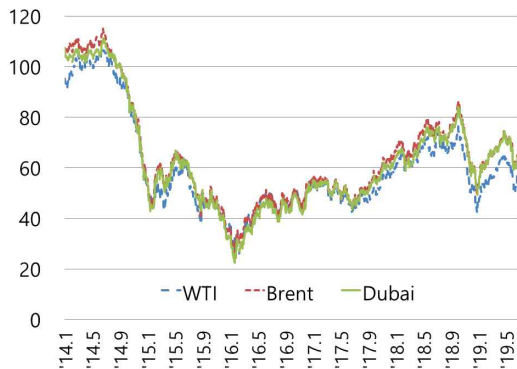
2) 사우디아라비아, UAE, 알제리, 이라크 등 11개 OPEC 국가(OPEC은 총 14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란, 리비아, 베네수엘라는 감산 예외국임)와 러시아, 멕시코, 오만, 카자흐스탄 등 10개의 비 OPEC 산유국이 감산에 참여하고 있으며, 이들 국가를 'OPEC+'라고 함.

높이기 위해 국제유가 부양에 힘쓰고 있음.

- 사우디아라비아는 국가 개발 계획인 ‘사우디 비전 2030’ 추진과 관련해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 IPO 이후 주식 매각(발행 주식의 5%)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자 함.
- 유가 하락으로 사우디 정부가 원하는 IPO 가격과 시장의 평가 간 차이가 발생하여 국제 유가 부양을 통해 아람코의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함.

그림 1. 국제유가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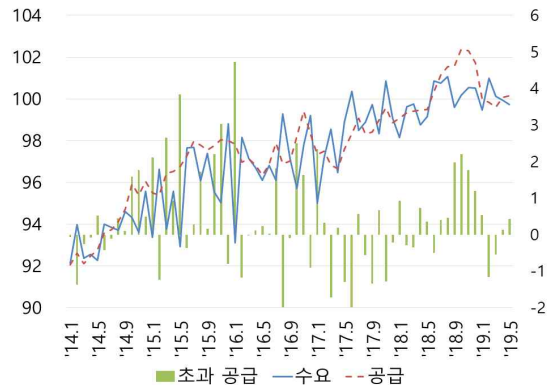
(단위: \$/b)



자료: Bloomberg.

그림 2. 세계 석유 공급 및 수요 추이

(단위: mil b/d)



자료: EIA(2019. 6), Short-Term Energy Outlook.

- OPEC+의 감산 합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원유 초과 공급 증가 가능성으로 인해 국제유가의 하방 리스크가 클 것으로 전망됨.
- OPEC+의 합의 이전부터 감산 연장에 대한 전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국제유가 급등 가능성은 작으며, 큰 이슈가 없는 한 현 수준에서 등락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.
- 미·이란 갈등, 중동 내 지정학적 불안 등의 상승 요인이 있으나 여전히 국제 원유 수요 둔화, 미·중 무역 분쟁, 셰일오일 생산 증가 등의 하락 요인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.
- 감산 합의에 따른 부양 효과가 불투명할 경우 OPEC+국가들의 감산 이행을 감소로 유가 추가 하락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음.
- 감산 합의로 당분간 현 국제유가가 유지될 수는 있으나, 장기적인 관점에서 OPEC 국가들의 시장점유율 감소에 따른 영향력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.

<자료: Bloomberg, EIA, Financial Times 등 참고>

손성현 전문연구원